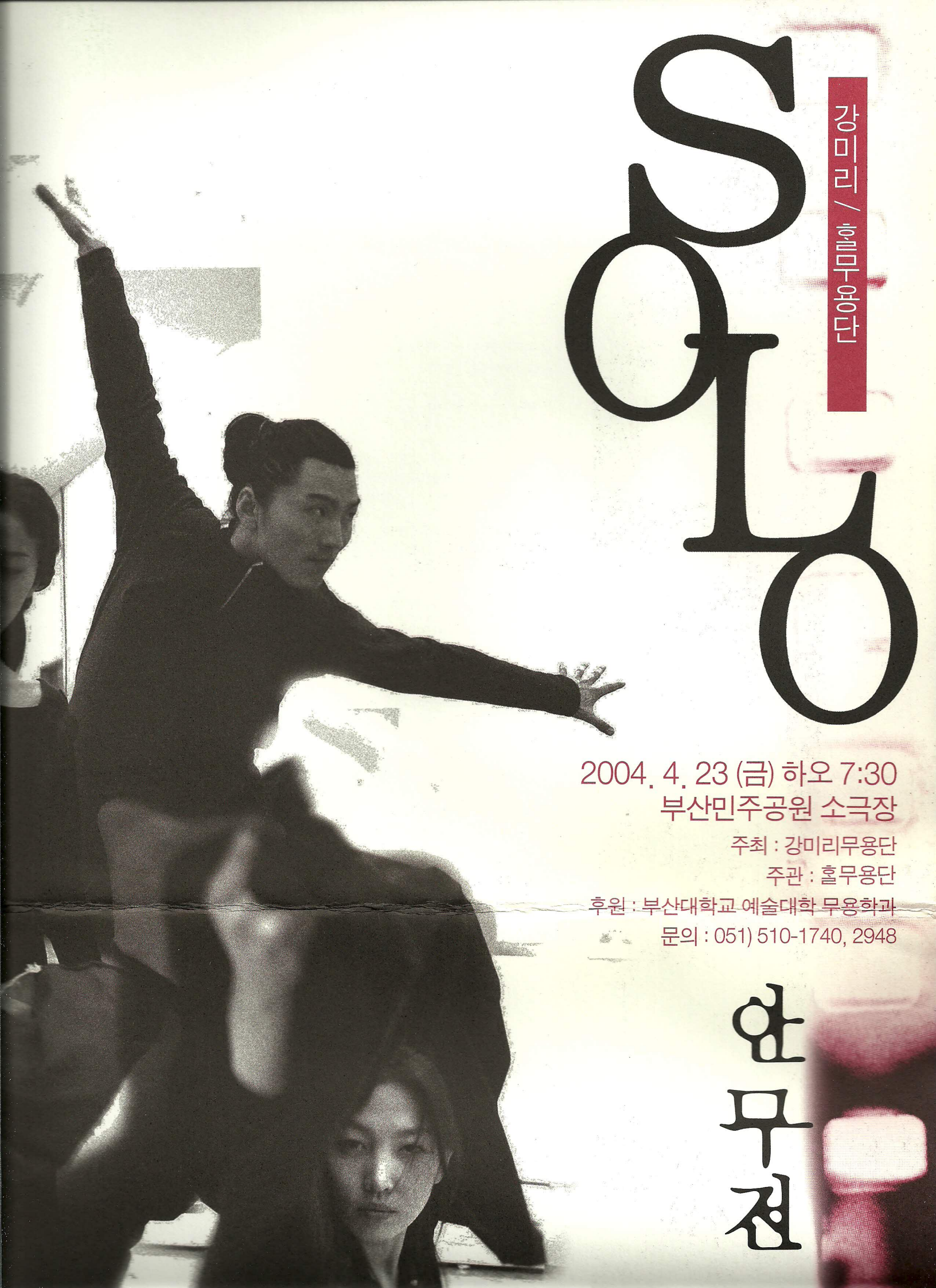


SOLO

강미리 / 홀무용단

2004. 4. 23 (금) 하오 7:30
부산민주공원 소극장

주최 : 강미리무용단
주관 : 홀무용단
후원 : 부산대학교 예술대학 무용학과
문의 : 051) 510-1740, 2948

안무전

PROGRAM

물들이다……

안무 및 출연 / 안 주 희
미술 / 이수연

하얗다…… 무지의 나……길들여지지 않은 나…… 내가 있다.
시간이 흐르면서 난 점점 한 길로만 가고 있다.
이 길이 아니면 ……?!?
이 길이 아니면 다른 길로 가라고 하지만,
난 이 길이 나에게 잘못된 길이라고 해도 거부하고 싶지 않다……
물들여졌기에…… 그 물들임이 결코 싫지 않기에……

- 부산대학교 예술대학 무용학과 졸업
- 현 / 부산시립무용단 단원
- 주요작품 / 「도는 이끌림」

간다 간다 간다

안무 및 출연 / 신 지 현

현대는 너무 많은 나를 요구하고 나는 가면 속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가면 쓴 내가 몇인지도 모르는 때, 단 하나의 가면 속에 초롱히 앉은
신부를 만났다.
단 한명의 나를 거부하는 외부세계, 단 한명뿐인 나를 찾지못하는 나.
신부와 나와 외부세계가 만나 항변하기도, 수긍하기도, 타이르기도,
위로하기도 서로를 감싸안기도 하는 의사소통을 통한 관계 맺기에서
자신을 털어놓으려 하는 나의 현재 모습을, 현대를 살아가는 수많은
가면의 주인들의 모습을 본다.

- 부산대학교 예술대학 무용학과 졸업
- KBS콩쿨 은상 수상
- 주요작품 / 「넘고 풀어운다」, 「가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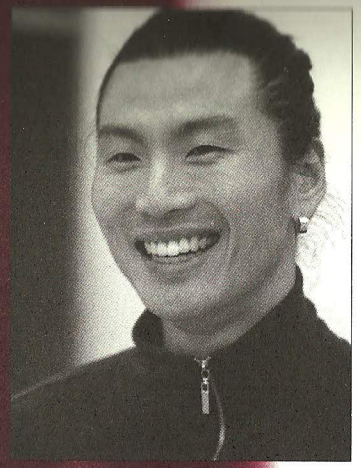
홀무용단 창단공연에 부쳐

부산에 터를 잡은지 벌써 6년.
이젠 제자들이 각자 제 색깔의 얼굴을 갖고자 열망합니다.
순탄치만은 않을 그들의 춤 행로에
걱정부터 앞서지만 춤 동료를 만난 기쁨에
죽은 세포가 되살아나 몸과 의식이 각성되는듯 합니다.
작은 몸으로 큰 것을 이루고자 하는 홀무용단.
하늘을 담은 춤, 자연을 담은 춤 이것이 앞으로
홀무용단이 이루어야 홀우리의 모습입니다.
지켜봐 주십시오.

강 미 리 (홀무용단 예술감독)

세상을 향해 팔 벌리고 도약하는 몸짓으로…

변함없이 돌아오는 계절이지만 올해 2004년 4월의 봄은
여느때와는 다르게 느껴집니다.
그건 저희 단원들이 껍질을 깨고 세상을 향해
도약하기 시작하는 뜻 깊은 달이기 때문입니다.
처음, 시작 그것은 새롭고, 두렵고, 설레임이
공존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새가 알에서 태어나려면 껍질을 깨는 아픔을 견뎌야 하듯이
우리 단원들도 새로운 시작을 위하여 아픔을 인내하여
한층 승화된 몸짓의 모습으로 거듭나기를 바랍니다.
오늘 춤꾼들의 열정과 탐구정신이 자유롭게 분출되는
실험과 도전의 무대가 될 수 있도록
많은 격려 부탁드립니다.
이번 공연을 위하여 많은 도움을 주신
강미리 교수님과 단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저희 홀무용단 활동에 따뜻한
관심과 애정으로 지켜봐 주십시오.



뢰(雷)

안무 및 출연 / 박 상 용

마치 또 다른 문이 된 듯 꼼짝않고 문지기가 되어 서 있는 사천왕의 모습. 그러나 그 일렁이는 에너지는 결코 숨길 수가 없다. 과장된 근육은 춤추는 것 같고 사람의 속내를 훤히 관통하는 듯한 그 눈빛은 금방이라도 잘못을 꾸짖으며 호령할 것 같다.

- 부산대학교 예술대학 무용학과 졸업. 동대학원 재학
- 현 / 부산시립무용단 단원
- 주요작품 / 「하늘의 문」

달아

안무 및 출연 / 왕 정 희

한 밤의 달처럼 홀로 차오르고 쓰러지는 한 여성의 이미지를 몸이라는 가장 구체적이고 생물학적인 제재의 고찰을 시작으로 풀어나간다. 춤추는 순간 몸과 의식은 하나가 된다. 그러나 질병이 찾아오고 하루 하루 약물치료를 받아야 하는 내게 몸과 의식의 분열이 시작되고 생물학적인 신체반응에 번번이 쓰러지고 마는 나를… 나는 내어 던지고 싶었다. 달의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여자의 몸을 뛰어넘고 싶었다.
작품을 만들어 가는 동안 울고 또 울었다. 그리곤 피식 웃어버렸다.
더 이상 내게서 몸은 극복해야 할 대상이 아닌 게 되었다. 그런 채로 업고 어루고 달래고 오히려 즐기면서 남은 여행을 같이 해야 할 소중한 나의 몸임을 알게 되었다.

- 부산대학 예술대학 무용학과 졸업
- 주요작품 / 「돌」

스텝 | 총연출 : 오정국 | 무대감독 : 최정완 | 조명 : 권성훈 | 음향 : 전성환 | | 사진 : 이도희 |

홀은 가장 으뜸의 이름씨이고
홀은 내일에 대한 약속의 또 다른 움직씨이다.
홀무용단은 오늘의 움직씨의 홀로
내일의 이름씨의 홀의 바탕을 만들고자 한다.

홀무용단 단원

이한순 하진숙 김경미 최재원 박상용
왕정희 권해정 김기하 이혜진 안주희 신지현
신지영 홍연희

강미리 / 홀무용단
초청 솔로 안무전

바라헥스타시

2004. 4. 23 (금) 하오 7:30 / 부산 민주공원 소극장

주최 : 강미리무용단 / 주관 : 홀무용단 / 후원 : 부산대학교 예술대학 무용학과

포은 정몽주 선생의 시 石壁題咏의 시를 모태로 바라춤과 영상작업의 어우러짐.

石壁題咏 (날지 못한 꿈)

천길 바위 돌길로 돌고 돌아
홀로이 다다르니 가슴에는 근심이
청산에 깊이 잠겨 맹세하던 부여국은
누런잎 어지러이 백제성에 쌓였도다.
구월의 소슬바람 나그네 시름 짙고
백년기상 호탕함을 서생은 그르쳤네
하늘가 해는 지고 뜬구름 뒤섞이는데
하염없이 고개들어 송도만 바라보네.

—포은 정몽주

다 음

- 83. 인간문화재 50호 정지광 스님으로부터 범패전수
- 95. 한국 현대 미술 함부르크전 퍼포먼스(독일)
- 96. 원효 대제전 참가
- 99. 제 8회 부산무용제 우바이 무용단(대상)—특별출연
- 04. 영암 왕인 축제 (선향기획, 출연)
- 현, 全州 산조예술제 기획 위원